

# 영화 속 바로크 음악의 서사적 기능 연구 -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pic Functions of Baroque Music in the Movie - Based on the movie <Sympathy for Lady Vengeance> -

안준희, 전윤한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음악학과 일반대학원

Jun-Hee Ahn(jhian@hanmail.net), Yoon-Han Jeon(jyhman@khu.ac.kr)

### 요약

근대 음악이 탄생하고 성장했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영화를 위해 작곡된 음악은 아니지만 영화에 다양한 형태로 삽입되어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서사를 이끌어가고 등장인물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사용된 테마곡인 비발디(A. Vivaldi)의 Cantata Rv.684를 포함한 5곡의 바로크 작품을 조성, 템포, 다이내믹, 음형, 음정, 화성, 리듬, 악기 편성, 장르 등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분석한 후 바로크 음악이 영화 속에서 어떠한 서사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중심어 : | <친절한 금자씨> | 바로크 음악 | 영화 음악 | 서사적 기능 |

### Abstract

Baroque music was the birth and growth era of modern music, but it was not composed for movies. Baroque music, however, is a feature that is inserted into the movies in many different forms, leading to the overall mood and narrative, and the ability to express the characters' feeling and inner word. Therefore, in this study, five Baroque music works, including the main theme song 'Vivaldi Cantata RV.684' in the movie <Sympathy for Lady Vengeance>, are produced, and analyzed through tonal, tempo, dynamics, musical notes, tones, rhythms, musical instrument, and genre. Through analysis, we will study what epic functions and roles Baroque music plays in movies.

■ keyword : | <Sympathy for Lady Vengeance> | Baroque Music | Film Music | Epic Function |

## 1. 서론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로, 영상과 더불어 내러티브와 텍스트, 미장센, 연기, 언어, 소리 및 음악, 조명, 색채, 공간 등과 같은 영화의 물질적 형상화

를 구성하는 다양한 표현도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은 현대 사회에 이르면서 영화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미지 묘사와 반복의 기능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가시적 이미지를 상상적 시, 공간으로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

었다[1]. 초기 무성영화 시대에 기존의 클래식 작품들 중 영화의 분위기에 어울리고 감정표현을 도와 줄 수 있는 곡들을 선별해서 연주되던 영화음악은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기존의 삽입곡뿐만 아니라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창작곡 그리고 효과음 등으로 세분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기능 또한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를 위해 작곡된 음악은 아니지만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속한 고전시대 음악과 함께 빈번하게 영화에 삽입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크 음악이 영화 속에서 어떠한 서사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1600년경부터 바흐 서거 1750년까지 150년간에 이르는 짧은 기간의 음악을 지칭한다. 바로크라는 용어는 포르투갈어 baroco(일그러진 진주)에서 유래된 단어로 당시는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인, 경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예술의 조화와 균형미 그리고 절제를 추구하는 르네상스 음악과 고전주의 미학의 규범과는 대조적으로 거친 멜로디와 자연스럽지 못한 진행, 혼돈스러운 화성 및 조바꿈 그리고 불협화음의 사용 등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음악이라는 비평이 뒤따랐다. 그러나 통주저음기법, 콘체르타토 양식, 신 양식(style modern), 화려 양식, 감정이론, 제 2작법 등의 새로운 이론과 기법들의 출현으로 점차 비평가들에 의해 새로운 양식과 예술형식이 나타난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음악으로 정의되어지게 되었다[2]. 17세기 이전까지 화성과 선율의 기초 원리로 작용해 왔던 중세 선법은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 점차 장, 단조의 조성 체계로 바뀌게 되었고, 종교 음악과 세속 음악, 성악과 기악 사이의 구별도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음악의 색채를 중요하게 여기고, 반응계적 화성 및 불협화음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전례 없이 인간의 폭 넓은 감정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썸과 여림, 합주와 독주, 밝음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의 상호 대비 효과로써 심리적인 감동과 작품에서의 감정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3]. 이처럼 바로크 시대에는 서양 음악의 다양한 형식 및 사조 그리고 음악어법들이 확립, 발전되었고 이러한 기법과 양식의 발전은 음악을 통해 작곡

가들의 내면 및 이념을 표현하려는 노력과 함께 음악을 통해 비교적 객관화되고 유형화된 정서를 재현하고, 인간의 감정을 생생하고 격렬하게 표현하고 하였기에 21세기를 맞이한 지금도 그 영향력과 파급력 상당하다. 바로크 음악의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긴 대표 작곡가로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헨델(George Frideric Handel, 1685-1759), 비발디(Antonio Vivaldi, 1678-1741)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테마곡인 바로크 시대 대표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A. Vivaldi)의 Cantata Rv.684를 포함한 5곡의 바로크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바로크 음악이 영화 속에서 어떠한 내러티브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지영[4]은 기존 음악 중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인 바흐의 다양한 작품들이 영화 안에서 장면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는지 연구하고 있다. 관현악곡, 협주곡, 독주곡, 성악곡 등 다양한 바흐의 작품을 선별하여 이 곡들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바흐의 작품들이 영화의 장면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바흐의 작품이 영화 속에서 사용 될 때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바흐라는 작곡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바로크 시대 전체의 음악이 영화에 미치는 기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박지혜, 이주은[5]은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에서 사용된 바로크 풍의 음악이 각색과정을 거친 영화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영화에 사용된 바로크 풍의 음악을 곡의 구성, 테마, 악기 사용, 템포, 연주법 등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영화에 미치는 음악적 특징과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로크 시대의 악기, 템포, 연주기법, 곡의 구성 등이 영화 속에서 어떠한 음악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크 작곡가들이 작곡한 음악이 아닌 바로크 풍으로 창작된 음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삽입곡인 바로크 음악이 가지는 기능을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전체 서사와 음악

표 1. 영화 &lt;친절한 금자씨&gt;의 음악 넘버

| 곡번  | 곡명                                | 장면                 | 작곡 및 편곡      |
|-----|-----------------------------------|--------------------|--------------|
| #1  | 친절한 금자씨: Cantata RV.684           | 출소하는 금자 외 2장면      | A. Vivaldi   |
| #2  | 기도하는 금자                           | 오프닝 크레딧, 엔딩 크레딧    | 조영욱, 최승현     |
| #3  | 너나 잘 하세요                          | 뉴스에서 이금자사건 설명      | 조영욱, 최승현     |
| #4  | 마녀 이금자: Caprice No.24             | 오수희 교도소 입소 외 5장면   | N. Paganini  |
| #5  | 속죄                                | 양희의 범죄 장면, 금자 내레이션 | 조영욱, 최승현     |
| #6  | 슬픈 인연                             | 우소영과 교도소 만남 외 1장면  | 조영욱, 최승현     |
| #7  | 화창한 오후: String Concerto RV.159    | 악녀 고수희에 대한 금자의 보복  | A. Vivaldi   |
| #8  | 너무 변했어: Concerto RV.310           | 출소한 오수희와 금자의 만남    | A. Vivaldi   |
| #9  | 구술 이야기                            | 범죄 현장 검증           | 조영욱, 최승현     |
| #10 | 천사가 지나간 자리                        | 제니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     | 조영욱, 최승현     |
| #11 | 이별                                | 우소영과 남편 등장         | 조영욱, 최승현     |
| #12 | 제니의 자장가                           | 사막에서 제니 만남 외 1장면   | 조영욱, 최승현     |
| #13 | 편지                                | 제니의 내레이션 외 2장면     | 조영욱, 최승현     |
| #14 | 죄와 벌: Concerto RV.578             | 악녀 고수희의 범행 외 2장면   | A. Vivaldi   |
| #15 | 방아쇠를 당겨라: Bassoon Concerto RV.484 | 총 쏘는 금자 외 1장면      | A. Vivaldi   |
| #16 | 세상에서 제일 사악한 케이크                   | 백선생의 핸드폰에 달린 범행증거  | 조영욱, 최승현     |
| #17 | 우울한 파티                            | 은주 할머니의 응징 외 1장면   | 조영욱, 최승현     |
| #18 | Mareta, mareta no'm faces plorar  | 금자와 제니의 만남 외 1장면   | Jordi Savall |

을 구조적으로 파악한 후, 영화에 등장하는 18곡 중 바로크 시대의 작품을 분류하여 각 음악의 조성과 템포, 다이내믹, 음형, 음정, 화성, 리듬, 악기 편성, 장르 등의 비교 분석을 거쳐서, 이 영화에서 사용된 바로크 음악들이 영화의 내러티브와 서사담론, 이미지, 주제 등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영화 소개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와 함께 대표적 3대 복수극으로 일컬어지는 <친절한 금자씨>는 2005년에 상연된 영화로, 어린 소년을 납치하고 살해한 누명을 쓴 주인공 이금자가 13년간의 교도소 복역 후 벌이는 복수극에 관한 영화이다. 전작 복수 영화의 성격과 특성을 이어가면서 이금자라는 여성을 복수의 주인공으로 내세워 영화 곳곳에 모성애를 비롯한 여성성과 함께 섬세함을 나타냄으로 전작 영화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있다. 영화는 복수와 함께 속죄,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금자, 약한 사람에게는 친절을 악한 사람에게는 불친절을 실천하는 친절한 금자와 마녀 이금자, 복수의 화신이 된 절대악 금자와 모성애라는 절대선의 금자가 펼치는 복수극을 총 상영 시간 115

분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영화는 이금자(이영애)의 출소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뛰어난 미모의 금자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백선생(최민식)의 사주로 6세의 꼬마를 납치하고 살해한 누명을 쓰고 13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 복역 기간 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동료와 교도관들로부터 '친절한 금자씨'라는 별명과 함께 신임을 얻게 된다. 하지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금자는 자신이 도와주었던 교도소 동료들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유괴혐의와 살인 누명을 씌운 백선생에게 잔인하게 복수하고 유괴당한 아이들의 부모들과 함께 백선생을 처절하게 응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는 과거 교도소 복역 장면과 현재 출소 후 복수 계획 장면을 번갈아 가면서 구성하고, 영화 중간 중간 내레이터가 금자의 내면 상태 및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서사담론<sup>1)</sup>을 연출한다.

### 2. 영화 <친절한 금자씨> 속 바로크 음악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사용된 음악은 총 상영 시간 115분 중 약 38분의 분량이고, 테마곡 <친절한 금자씨>(Vivaldi Cantata Rv.684)를 포함한 총 18개의 곡

1) 시간적, 인과론적 경로에 따른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을 글 또는 말로 된 담론으로 진술할 때 담론을 조정하는 서술자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서술자를 중심으로 서사라는 형식과 누구에 의한 서술과 내용인지를 보는 관점이라는 내용이 합쳐진 이론이다[6].

(참고: [표 1])이다. 비발디의 곡이 5곡, 파가니니(N. Paganini, 1782-1840)의 Caprice 24번, 조르디 사발(Jordi Savall, 1941-)의 자장가 <Mareta, maretao'm faces plorar>외에도 음악감독 조영욱과 작곡가 최승현이 작·편곡한 11곡 등이 영화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바로크 음악은 총 10장면에서 약 8분간 사용되고 있다.

## 2.1 A. Vivaldi Cantata RV.684

[악보 1]과 같이 테마음악 “Vivaldi의 Cantata RV.684”는 알토와 현악기를 위한 세속 칸타타로 두 개의 레치타티보와 두 개의 아리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레치타티보 Cessate, omai cessate와 두 번째 파트 아리아 Ah, ch'infelice, 세 번째 레치타티보 A voi dunque corro 그리고 마지막 아리아 Nell'orrido albergo가 교대로 나온다. 그 중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사용된 테마음악(#1)은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2번째 파트 알토 아리아 “Ah, ch'infelice sempre, 왜 나의 슬픔 이외에는 원치 않는가?”이다. 이 곡은 주인공 이금자가 출소해서 자신을 마중 나온 전도사님을 향해 “너 나 잘 하세요”라는 독설을 내뱉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자가 죽은 원모의 집을 찾아가 본인의 손가락을 자르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을 죽인 백선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권총의 도면을 교도소 동료 고선숙과 우소영의 도움으로 맞추는 장면 등 총 3장면에 1분 21초간 오버랩 된다.

화성분석 : Gm Fm Cm/Eb D

악보 1. Vivaldi Cantata RV.684

바로크 시대의 감정이론에서 비극과 비탄의 정서를 드러내는 라르게토(Larghetto)의 느린 템포로 연주되는 이 곡은 G단조의 조성(악보 1)과 함께 누명을 쓰고 복역한 주인공 금자의 비통한 감정과 불타는 복수심에 대한 비극적 정서를 조성해 주고 있다. 출소한 금자를 중심으로 행해질 복수의 어두운 서사 분위기와도 조화를 이룬다.

전주 부분의 바이올린의 16분음표 연속 피치카토(pizzicato, [악보 1]의 ○부분)<sup>2)</sup>와 다른 현악기들의 8분음표의 동일음형 피치카토는 오랜 여운과 함께 음악에 강한 인상을 부여하면서 출소한 금자가 앞으로 행할 복수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리고 밝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첼발로와 첼로가 통주저음(basso continuo)<sup>3)</sup>을 날카롭고 강한 느낌으로 G음부터 D음까지 8분음표로 순차 하행([악보1]의 □부분)하는 부분은 무거운 느낌을 더하면서 주인공의 불타는 복수심과 고뇌, 비통 등의 감정과 어울리고 있다. 그리고 화성과 결합된 확고한 베이스의 진행과 피치카토로 끊임없이 연주되는 화려한 상성부 연주의 대조와 대칭을 통한 상호대비 효과는 Gm-FM, Cm-DM, GM-Cm, DM-Gm, Cm-DM-Gm, Cm-DM-Gm의 마이너코드와 메이저코드의 반복 사용과 맞물려 복수와 속죄라는 두 상황과 주인공이 ‘마녀 이금자’와 ‘친절한 금자씨’라는 두 상반된 이미지로 콘텍스트의 경계를 아슬하게 넘나드는 것을 절묘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원곡의 가사는 사랑을 잃고 슬픔에 빠진 주인공이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인데 노래의 묘하면서도 구슬픈 멜로디와는 반대로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주인공 금자의 상황과 절묘하게 어울리고 있다. 영화에서는 바이올린 선율이 노래를 대신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바이올린 소리는 강한 긴장감과 함께 복수라는 주제를 형상화시키는데 적절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 2.2 A. Vivaldi String Concerto RV.159

음악넘버 7번 “화창한 오후, Vivaldi String Concerto RV.159”는 죄수들이 햇살이 퍼지는 화창한 오후에 운

2) 현악기에서 활로 치는 대신 줄을 손가락으로 핑기는 주법으로, pizz. 라는 줄임말로 표기하며, 다시 활로 연주하는 아르코와 대비된다[7].  
3) 통주저음(basso continuo)은 단선율로 기보된 베이스 성부를 토대로 연주자가 나머지 성부를 즉흥적으로 채워 넣어 연주하는 것이다[8].

등을 하면서 금자가 마녀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장면에서 약 1분 05초간 등장한다.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도소 안의 마녀가 죽고 나서 일종의 해방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수감자들의 감정 및 반응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대사가 음악과 어우러져 코믹함을 더해 주고 있다. 이 곡의 조성은 바로크시대의 감정이론에서 명명하고 있는 감동적이고 화려한 정서를 내포한 A Major이고[9], Allegro(빠르게)의 빠른 템포로 이전 곡들과는 다른 느낌의 윤택하고 밝은 느낌을 통해 영화 분위기에 반전을 드러내고 있다.

화성 분석 : A E7/G# F#m7 E

악보 2. A. Vivaldi String Concerto RV.159

저음역대를 연주하는 현악기와 금속성이 강한 첼발로 소리는 주선율을 담당하는 날카로우면서도 화사한 바이올린의 음색과 어우러져 바로크풍의 웅장함과 바로크 음악 특유의 생동감과 화려함을 연출하면서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오후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바로크 감정이론에서 명명하는 정서를 온전한 평안과 만족으로 이끌고 기쁨의 정서를 표현해 주는 협화음 화성[10]이 AM-EM/G#-F#m7-E7 코드로 연주되면서 등장인물의 기쁨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악보 2 참조). 8분 음표와 16분 음표의 혼합 음형(악보 2의 ○부분)의 순차하행을 통한 반복은 감정의 강도를 점층적으로 높여주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마녀로부터 해방된 수감자들의 안도와 기쁨의 정서를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저음 악기들이 동형 음형을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부분(악보 2의 □부분) 또한 곡 전체에 안정감과 동시에 생기 있는 느낌을 더해 마녀의 죽음 후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는 죄수들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 2.3 A. Vivaldi Concerto RV.310

음악번호 8번(#8) “너무 변했어, 비발디의 Concerto RV.310”은 1712년 암스테르담에서 출판된 비발디의 최초 협주곡집 ‘조화의 영감(L'estro armonico)’에 수록된 12곡 중에서 3번째 작품으로 투티와 독주의 교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발디 협주곡의 특징이 잘 드러난 곡이다. 이전의 전통을 탈피하고 다양하고 극적인 구성을 통한 자유로운 창조적 발상이 잘 드러난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은 이 곡의 2악장으로 교도소 동료 오수회를 괴롭히는 마녀를 응징하기 위해 목욕탕 바닥에 비누를 묻혀 마녀를 넘어지게 만든 금자가 비누를 들고 오수회를 보며 환하게 웃는 장면에서 음악이 시작되어 금자가 교도소에 출소한 오수회와 만나 백선생의 복수에 관해 대화하는 장면에서 1분 25초간 나온다.

G단조와 함께 마테존(Johann Mattheson)의 감정이론에서 명명하는 수심, 비탄, 슬픔의 정서를 내포한 E단조의 곡[9]이 느린 Largo의 박자로 연주되는데, 무표정하고 무심한 듯 오수회와 백선생의 복수를 얘기하는 금자의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과 복수에 대한 불길한 정서와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켜 주고 있다.

현악기가 투티(tutti)로 단조화성을 스타카토로 무겁게 끊어 반복 연주하는 부분(악보 3의 ○부분) 앞으로 닥칠 불길한 복수극을 예견하는 듯한 느낌을 조성하면서 긴장감을 자아낸다. 뒤이어 화답하듯이 연주되는 바이올린 solo의 16분 음표 연주(악보 3의 □부분)는 고음역대로 상행진행하면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코드를 통해 조성되었던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

악보 3. Vivaldi의 Concerto RV.310 제2악장

주인공의 복수에 대한 비장함과 어두운 정서를 근저에 흐르게 하는 현악기의 목직향 코드 연주와 앞으로 행해질 복수에 대한 긴장과 예측을 나타내는 바이올린의 16분 음표의 상행 선율연주가 메이저, 마이너 화성을 반복(Em-BM, Em-EM)하며 2마디 단위로 흘러나오면서 관객들에게 영화 전체에 흐르는 긴장과 대조되는 이완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11].

#### 2.4 A. Vivaldi Concerto RV.578

음악번호 14번 “죄와 벌”, 비발디 Concerto RV.578”은 교도소에서 마녀라 불리는 악녀 고수희의 범행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과 폐교에서 백선생을 의해 유괴되고 살해된 아이들의 부모들이 모여 백선생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의논하는 장면과 잡혀온 백선생이 스피커를 통해 그것을 듣는 장면 등 총 3장면에 2분 45초간 등장한다. 이 곡은 비발디의 협주곡집 ‘조화의 영감(L'estro armonico)’에 2번째로 수록된 곡으로 두 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현악부, 통주저음 등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구성된 곡으로 비발디의 일반적인 협주곡 구성인 알레그로-아다지오-알레그로의 3악장 구성이 아닌 느린 악장이 처음을 시작하는 독특한 악기 편성을 가진 4악장으로 구성된 협주곡이다.

이 영화에서 사용된 음악은 첫 번째 악장 Adagio e spiccato인데, 비극적 느낌을 자아내는 G단조의 조성과 Adagio의 느린 템포에서 음이 점차 겹쳐지면서 시작되

는 완만하고 장중한 도입부는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복수의 처절함과 잔인함을 관객들에게 노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다.

이곡에서는 지속적으로 느리고 둔중하게 연주되는 8분 음표의 동음반복 진행이 현악기와 첼발로의 음과 겹쳐지면서 바로크 작곡가들이 정서표현과 자극을 위해 자주 사용하였던 특히 비극적이고 음울한 정서에 자주 사용되는 장2도([악보 4]의○부분)와 단2도의 불협화음을 만들고, 영화에 극적 긴장감을 조성해 줌으로 남편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는 마녀의 끔찍한 행동에 대한 공포분위기 및 등장인물들의 복수에 대한 음울한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오수희가 교도소에서 마녀의 성적노리개로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과 마녀의 범행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사용된 음악은 관객들로 하여금 마녀의 악랄한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악보 4. Vivaldi의 Concerto RV.578

음의 겹침을 통한 불협화성과 협화성의 반복 사용으

로 꾸준한 긴장을 쌓아가던 8분 음표의 동음반복 진행은 바로크 시대 당시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흥악하고 악마적인 것을 상징하던 증4도의 음정을 내포한 감7도의 화성([악보 4]의 □부분)부분에서 최고조를 이루면서 영화의 비극성과 긴장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9]. 그리고 부르마이스터(J. Burmeister, 1564-1629)의 이론서 <시적음악>(Music poetica, 1606)에 제시된 음형처럼 다른 악기들과 단 6도와 증4도를 형성하면서 거칠게 상승하는 바이올린의 선율은 팽팽한 긴장감을 더해 주면서 등장인물들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 비통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다[10].

### 2.5 A. Vivaldi Bassoon Concerto RV.484

음악번호 15번 “방아쇠를 당겨라, 비발디 Bassoon Concerto RV.484”는 통주저음의 일부를 담당했던 바순을 독주 악기로 사용한 협주곡으로 알레그로-안단테-알레그로의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주악기 바순과 현악 앙상블, 통주저음으로 편성된 협주곡으로, 목관 악기 중 가장 음역이 낮은 바순의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의 음색이[12] 잘 드러나 있는 곡이다. 이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은 이 곡의 3악장으로 제목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이금자가 백선생의 사주로 자신과 딸을 납치하려는 납치범들에게 총을 쏘는 장면과 백선생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 등 2장면에서 1분 20초간 사용된다.

회성분석 : Em D#dim7 Em D#dim7 Em B7 Em D#dim7 Em D#dim7

악보 5. Vivaldi의 Concerto RV.484 1-5마디

이 곡 또한 바로크 시대의 감정이론에서 명명하는 수심, 비탄, 슬픔의 정서를 내포한 E Minor의 곡[9]으로, 알레그로 (Allegro)의 빠른 템포와 현란한 현악기 연주는 납치범들에게 쫓기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금자와 딸 제니의 표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주인공이 복수의 도구로 총을 겨누는 장면에서는 긴박감을 고조시켜 준다. 영화에서는 바이올린이 주선율을 주도하는데, 2개의 16분 음표와 이음줄로 연결된 8분 음표([악보 5]□부분)가 당김음(syncopation)의 효과를 내면서 금자의 고통과 분노의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1, 2, 4, 5 마디의 마지막 박자에 바로크 감정이론에서 명명한 고통과 비탄을 상징하는 증4도와 감7도[9]를 포함한 D# 디미쉬브 7th 코드(7th 코드)의 지속적 사용은 자신과 딸을 죽이려고 한 백선생과 납치범에 대한 금자의 분노를 최고조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리고 8마디와 10마디의 바이올린의 계속되는 빠른 하강 진행([악보 6]○부분)은 긴박한 느낌을 조성해 줌으로 금자가 납치범을 향해 뛰어가며 복수의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Em B E Am D/F#

악보 6. Vivaldi의 Concerto RV.484 6-10마디

### 3. 영화 <친절한 금자씨> 속 바로크 음악의 서사적 기능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사용된 5곡의 바로크 음악

은 서사 및 영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내러티브를 이끌어 나가고 등장인물의 심리 및 특정 장면의 특징을 표현하고 영화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사용된 5가지 바로크 음악의 서사적 기능을 다음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영화 <친절한 금자씨>속 바로크 음악의 기능

| 곡번  | 바로크 음악 곡명               | 바로크 음악의 서사적 기능   |
|-----|-------------------------|--|
| #1  | Cantata RV.684          | 베이스의 통주저음과 자유로운 상성부 연주의 대조를 통한 대조미 확대 기능                                   |
| #7  | String Concerto RV.159  | 바로크 음악 특유의 웅장함과 생동감, 화려함을 통한 효과적인 장면 전달 기능                                 |
| #9  | Concerto RV.310         | 콘체르타토 형식 및 메이저 마이너 코드의 반복 사용을 통한 긴장과 이완 표현                                 |
| #14 | Concerto RV.578         | 8분 음표의 동음반복 진행을 통한 장2도, 단2도의 불협화음 조성 및 디미니쉬 7th코드의 사용을 통한 긴장감과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 |
| #15 | Bassoon Concerto RV.484 | 당김음(syncopation)과 마디의 마지막 박자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디미니쉬 7th코드를 통한 고통과 분노의 정서 극대화 기능  |

영화에서 사용된 테마음악 Cantata RV.684는 비극과 비탄의 정서를 드러내는 라르게토(Larghetto)의 느린 템포와 G단조의 조성을 통해 누명을 쓰고 복역한 주인공 금자의 비통한 감정과 불타는 복수심에 대한 비극적 정서를 조성해 주고, 영화의 서사 분위기와도 조화를 이룬다. 바로크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베이스의 통주저음과 이와 대비되는 바이올린의 상성부 피치카토 연주는 메이저, 마이너 코드의 반복적 사용과 함께 '친절한 금자씨'와 '마녀 이금자'로 그려지는 주인공의 이중적 대조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을 잃고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의 칸타타 가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금자의 상황과 절묘하게 어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tring concerto RV.159는 본 영화에서 쓰인 다른 바로크 작품과 달리 알레그로의 빠른 템포와 감동적이고 화려한 정서를 내포한 A Major의 조성, 그리고 계속 되

는 협화음의 화성을 통해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햇살이 내리쬐는 화창한 오후를 연상시키는 장면과 마녀로부터 해방된 수감자들의 기쁨과 안도의 정서를 바로크 음악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oncerto RV.310에서는 메이저, 마이너 코드의 반복 사용과 함께 바로크 예술의 중요한 표현 양식인 음색과 음량의 대조적 표현 방법인 콘체르타토 형식, 현악기 투티와 바이올린 솔로의 대조적 표현을 통해 관객들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대조되는 이완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Concerto RV.579에서는 느리게 연주되는 8분 음표의 동음반복 진행이 다른 악기의 음들과 겹치면서 장2도와 단2도의 불협 화성을 조성함으로써 남편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는 마녀의 잔인한 행동 및 공포 분위기를 극대화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도소 동료를 성적 노리개로 삼고 괴롭히는 마녀의 모습은 증 4도의 음정을 내포한 디미니쉬 7th코드의 사용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입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긴장감의 강도가 최고조로 이르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처럼 바로크 음악은 영화에 흐르는 암울한 정서와 마녀의 악랄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영화의 비극성과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바로크 음악은 우리에게 은근한 질서감과 안정감을 선사하는데 오히려 영화에서 잔인한 장면과 관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에서 장면의 분위기와 상반되게 역설적으로 사용됨으로 음악을 통해 반전을 선사하는 역설적 대조 기능 즉 아이러니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Bassoon Concerto RV.484는 알레그로의 빠른 템포와 현란한 현악기의 연주를 통해 장면이 전달하고자 하는 긴박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시켜 주고 있다. 음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당김음 리듬과 각 마디의 끝에 사용된 디미니쉬 7th 코드의 사용, 빠른 하강진행은 자신과 딸을 죽이려고 한 백선생과 납치범에 대한 금자의 적대감과 분노의 고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준다.



이처럼 심리적인 감동과 다양한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섬세하고 정교하게 재현하고자 했던 바로크 음악은 영화에서 조성, 음정, 화성, 리듬, 음형 등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내면감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재현해 냄으로써 주인공 이금자를 비롯한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관객들이 더욱더 사실감 있고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면과의 유기적 작용을 통해 영화에 강한 긴장감을 부여하고 복수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어두운 서사 분위기와도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밝고 화려하지만 차갑고 금속성이 강한 느낌의 바로크 대표 건반 악기인 쳄발로와 현악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바로크 음악이 갖는 장중함과 경건함 그리고 생동감을 표현해 줌으로써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서사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결론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클래식 음악은 장르와 모양새가 다양하고 양 또한 무궁무진하여서 영화 속에서 자주 삽입음악으로 사용된다. 특히 근대 음악의 탄생시대이자 성장의 시대였던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베토벤, 모차르트가 속한 고전 시대 음악과 함께 바로크 시대 음악은 영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바로크 시대에는 여러 서양 음악의 사조 및 형식, 음악어법들이 확립되고 발전된 시기이고 전례 없이 인간의 폭 넓은 감정들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표현하고자 했던 시기이기에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에도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상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를 위해 따로 작곡된 곡은 아니지만 바로크라는 특정 시대의 음악이 영화 속에 어떠한 서사적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는 테마곡인 비발디(A. Vivaldi)의 Cantata RV.684를 포함한 5곡의 바로크 작품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와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에 사용

된 바로크 작품을 조성과 템포, 다이내믹, 음형, 음정, 화성, 리듬, 악기 편성, 장르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영화 속 바로크 음악의 서사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통주 저음에 바탕을 두고 셈과 여림, 합주와 독주, 밝음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의 상호 대비, 대칭 효과를 통해 심리적인 감동과 감정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바로크 음악은 영화에서 대조미의 확대 기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영화에서 복수와 속죄라는 두 상황과 주인공의 '마녀 이금자'와 '친절한 금자씨'라는 두 상반된 양면적 이미지와 이중성을 표현하고 과거와 현재의 대비 상황을 통해 절대선이라는 모성애와 절대 악이라는 복수의 극단적 상황을 음악을 통해 풀어내감으로써 영화 전체에 흐르는 대조 성향을 음악을 통해 극대화 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밝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느낌의 바로크 대표 건반 악기인 쳄발로가 사용된 작품들을 영화 장면마다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주인공이 그리는 영화의 서사, 특히 극단적인 복수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밝고 화사함 속에서 질서와 균형을 추구한 바로크 음악은 영화의 주제와 분위기, 이미지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극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음악의 색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음계적 화성 및 불협화음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음악의 조성 과 음정, 화성, 리듬, 음형 등을 결합시켜 전례 없이 인간의 폭 넓은 감정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려 했던 바로크 음악은 등장인물의 정서와 심리를 암시하고 묘사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 특징인 반음계 사용과 불협화음의 사용은 영화에서 극적 긴장감과 등장인물의 악랄한 캐릭터를 더욱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

네 번째는 바로크 음악을 통한 역설적 대조 기능, 즉 아이러니 효과를 발견 할 수 있다. 낭만주의 음악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정서에 관심을 가졌다면 바로크 음악은 인간의 객관화되고 보편적인 감정 상태를 음악으로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공통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정서의 음악적 표현은 합리적이고 객

관적이고 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체계 안에서 정서는 인간의 이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한계와 질서, 균형을 찾게 되는 것이다[10]. 그러므로 바로크 음악은 우리에게 은근한 질서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바로크 음악이 잔인한 장면이나 스틸러에 사용되면서 장면 분위기가 서로 상반되는 음악을 역설적으로 사용하는 반전 기법과 강조 기능을 통해 아이러니를 선사하고 강인한 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바로크 음악은 영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면서 영화의 분위기와 서사를 이끌어가고 등장인물의 감정선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 때 바로크 음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과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의 장면이 가지는 느낌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배치하고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보기를 제시해 보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D. Moucellic Gilles, 박지희 역, *영화음악*,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2] 이수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7학년 음악교과서에서의 바로크 음악 분석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3] 이동환, *청소년을 위한 서양음악사*, 두리미디어, 2004.

[4] 정지영, *영화 속에 나타난 바흐 음악과 장면과의 상관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실용음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5] 박지혜, 이주은, “영화 음악의 내러티브 역할 분석,” *문화콘텐츠학회*, 제1권, 제7번, pp.153-183, 2016.

[6]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하)*, 새미, 2006.

[7] 삼호 뮤직 편집부,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 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8] 김강희, 공누이, 형희전, *음악용어사전*, 뮤직 트리, 2009.

[9] 김미애, “바로크시대의 감정이론(Affektenlehre)에 관한 고찰,” *이화음악논문집*, Vol.13, pp.1-40, 1999.

[10] 나주리, “바로크 음악의 정서론(Affektenlehre)에 대한 소고,” *연세음악연구학회*, Vol.19, pp.33-48, 2012.

[11] 정나리, *편곡된 음악이 영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과 이를 통한 관객의 정서환기 효과 : 고전음악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2] 김달성, 박관우, *악기론*, 세광음악출판사, 1992.

[13] S. Adler, 윤성현 역, *관현악 기법 연구*, 수문당, 1995.

[14] 민은기, 심은섭, 오지희, 이경희, 이보경, 이서현, 이재용, *21세기 음악가를 위한 바로크 음악의 역사적 해석*, 음악세계, 2006.

[15] 음악 지우사 편, 음악세계 역,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비발디*, 음악세계, 2001.

[16] 정서경, 박찬욱, *친절한 금자씨 각본*, 그책, 2016.

[17] 클라이브 웅거 해밀턴, 김형수 역, *클래식, 바로크 시대와의 만남*, 포노, 2012.

[18] 이재신, *이재신의 영화 음악론*, 헤드림 출판사, 2014.

[19] R. Prendergast, *Film Music: A Neglected Art*, New York: Norton, 1992.

[20] 김효정, *요한 마테존의 감정이론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1] 최유미, 이승연, “범죄영화 <이중배상> 속 테마음악의 기능적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48-56, 2015.

[22]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chive\\_3814](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chive_3814), 2017.06.29.

저 자 소 개

안 준 희(Jun-Hee Ahn)

정회원



- 2004년 6월 : 메쓰 국립음악원 피아노 및 반주법(석, 박사)
- 2018년 2월 :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음악학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관심분야> : 대중음악, 영화음악, 클래식

전 윤 한(Yoon-Han Jeon)

정회원



- 2006년 5월 : Berklee College of Music 버클리음대 영화음악작곡과(음악학사 BA)
  - 2011년 5월 :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학과(음악석사 MA)
  - 2016년 5월 : 상명대학교 뉴미디어음악학과(음악박사 Phd)
  - 2017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대중음악, 영화음악, 문화콘텐츠, 서사, 클래식